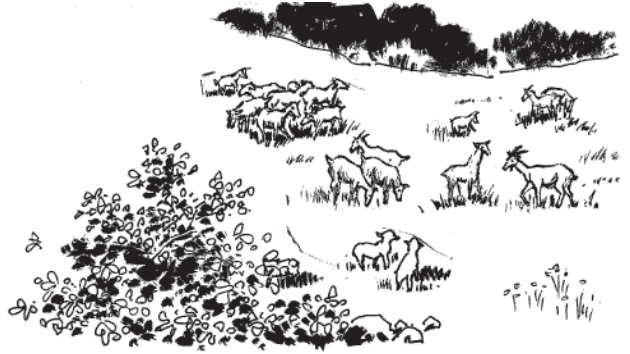


팜은 얼마나 진한가



최정희

1

참나무와 물황철, 개암나무와 다래덩굴이 무성하게 우거진 금봉산의 숲속 오솔길로 서른살남짓한 녀인이 걸어가고있었다.

닭알형의 가름한 얼굴에는 시름겨운 빛이 실려있고 걸음을 옮기는 두다리는 휘친거렸다.

떠구름, 풍계구름이 층층 부풀어오르며 떠가는 저녁하늘가에는 한낮동안 백열로 이글거리다가 이제는 퍼그나 식어버린 태양이 더위에 후줄근해진 나무잎새와 아이들에 진홍색노을빛을 뿌려던지며 서쪽산골짜기로 서서히 떨어지고있었다.

골개물이 주절거리며 골짜기바닥에 내려서자 갑자기 재빛땅거미가 내려덮이면서 눈앞이 어둑하게 흐려온다.

하늘을 쳐다보던 녀인은 이것이 한갓 자연현상으로만 안겨오지 않는지 호- 하고 어깨숨을 내불었다. 그는 장덕골 운수중대에서 운전사로 복무하는 리종대의 안해 신남녀였다.

지금 그의 심중은 가슴을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중압감으로 하여 착잡하기만 했다.

(어떻게 마련한 종자염소들인데...)

신남녀는 부지중 걸음을 멈추고 어둠이 휩싸이는 산밭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염소방목지에서 내려오는 길이다.

하루종일 쓰러진 염소들을 돌보느라 눈코뜰새없이 긴장한 하루를 보냈다.

그들부부가 관리운영하고있는 방목지에는 100여마리의 종자염소와 90마리의 비육염소가 있는데 무덤고 습한 장마철에 들어서자 일부 염소들이 원인모르게 쓰러졌다.

며칠동안 밤잠을 잇고 치료전투를 벌려 가까스로 살려놓았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기르는 수십마리의 돼지들중 몇마리가 알지 못할 병에 걸려 쓰러졌다는것이다.

부득불 현재 병든 짐승들을 대담하게 없애치우고 성한 짐승들이라도 잘 키워 비록 생산량은 좀 떨어지더라도 젓과 고기생산을 정상화해야겠다고 남녀는 생각하고있었다.

(금일이 아버지와 토론해야겠어. 더는 미룰수 없어.)

남녀는 지그시 입술을 옥물었다.

집에 오니 일곱살난 금일이는 토방우에서 책가방을 머리에 베고 모로 누워자고있었고 여섯살난 금복이는 새우처럼 등을 꼬부리고앉아 까딱까딱 고개방아를 찧고있다.

측은한 눈길로 애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가슴속에 아릿아릿한 런민의 정이 솟구쳐올랐다.

요사이 한 열흘동안은 너무도 경황없이 돌아가다보니 애들한테 따끈한 밥을 온전히 해먹이지 못하고 학기말시험정형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이 서리서리 엉켜든다.

《금일아, 금복아.》

남녀는 조용히 아이들을 흔들어깨웠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울롱하게 뜨던 금일이가 얼굴에 함박꽃웃음을 피워올리며 남녀의 목을 담뭍 끌어안았다.

《엄마, 나 오늘 수학시험 5점 맞았어요.》

《엄마, 나도 5점!》

금복이도 그의 팔에 감겨들며 자랑하였다.

《그래! 우리 금일이, 금복이 참말 용타. 공부를 잘한다니 똘다. 마음이 놓인다.》

남녀는 사랑스러운 자식들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었다.

《배고프지? 어서 들어가자. 엄마가 인차 밥해 주마.》

금일이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책가방에서 점심 밥곽을 꺼내며 활기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

《오늘 경준이 생일이야요. 맛있는걸 죽신히 싸왔었어. 자꾸만 내 밥그릇에 닭알이랑 고기랑 놓아주며 같이 먹자구 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남녀는 반찬곽을 열어보았다.

아침에 담아준 산나물찬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두눈을 꼭 감았다.

한해에 점심밥 싸는 일이 극상해야 보름이 되나 마나하건만 수많은 짐승들을 키우는데도 아이들의 반찬곽에 고기나 닭알은 제대로 싸주지 못하고 무우장절임이나 산나물, 극상해야 두부로 만든 찬밖에 담아줄수 없었다. 남녀는 다른 아이가 주는것을 맛있게 먹었다고 좋아하는 금일이를 보며 민망스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남녀는 무거운 생각을 털어버리려듯 머리를 흔들고는 부라부라 저녁식사준비를 서둘렀다.

그사이에 돼지물도 주고 오리, 닭모이도 주고나서 쌀인 빨래도 하였다.

한동안 팽이돌듯 움직이고난 그는 부엌창고에 들어가 닭알이며 고기, 두부, 버섯 등의 음식감들을 내왔다.

래일 병사들을 위한 날에 중대군인들에게 가져갈 음식준비를 하려는것이였다.

이때 방안에서 숙제를 하고있던 금일이가 부엌으로 나왔다.

그는 하얗고 노란 닭알들이 무드기 담긴 그릇을 보더니 환성을 올렸다.

《야, 닭알. 군대아저씨들한테 가져갈거냐요?》

《그래, 래일이 병사들을 위한 날이 아니냐.》

《엄마.》하고 금일이는 대뜸 닭알그릇앞에 다가앉았다.

《요 노란 닭알들 탁 러뜨려서 기름을 두고 칫칩지지면 기딱마히겠지요?》

금일이는 엄마의 얼굴을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군침을 꼴깍 삼키였다.

《한알 지저줄가?》

남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다음 아차! 하고 허를 깨물었다.

한알한알 세여놓은 닭알들인데... 그랬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남녀는 병사들을 위한 날에 쓰려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변변히 먹이지 못하면서 닭알을 한알두알 모아왔다.

집에서 기르는 알낱이닭들이 정상적으로 알을 낳으면 좀 여유도 있으련만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닭이 어느때보다 알을 적게 낳아 모자라는 닭알을 겨우 보충해놓은 남녀이다보니 이 순간에는 가슴이 좋아들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들애의 앵두같은 입술을 지켜보았다.

《안돼요.》아닌보살하며 도리머리를 짓는 아들애의 입에서 가느다란 속삭임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먹으면 군대아저씨들한테 대접할게 적어지지 않나요. 난 안 먹어도 일없어요.》

금일이의 눈이 사뭇 생기있게 반짝거려였다.

잘 익은 복숭아같이 밍그레한 얼굴에 진한 홍조가 퍼져갔다.

먹고싶은 생각은 굴뚝같은데 용케도 참아내며 엄마를 안심시키느라 제법 어른스레 말하는 아들애가 그지없이 기특해보여 남녀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금일이가 다 컸구나. 좀 있으면 닭이 알을 많이 낳을게다. 그뻐 맛있게 지저줄게. 좋지?》

《응.》

남녀는 고개를 까딱하며 제법 활기있게 대답하는 금일이의 얼굴을 다정히 어루쓸어주었다.

금일이가 아직 며칠은 더 점심밥을 싸가야 하겠는데 알낱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 애에게 끝내 닭알 한알 못 먹이지 않는가.

하지만 그는 방목지에서 뒤거두매를 하고 늦게야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짐승마리수를 줄이는 문제와 금일이의 반찬문제를 토론하고싶었으나 래일은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맞아야 할 뜻깊은 날인 병사들을 위한 날이였다.

2

다음날 밤, 리종대는 열시 반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일을 끝내고나서 저녁에 군위생방역소와 여러곳에 들러 집짐승들에게 필요한 예방약과 치료약들을 구해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는 불룩한 가방을 남녀에게 들려주며 말했다.

《약이 모자라서 안타까왔는데 이젠 됐소.》

남녀는 남편의 군복을 받아 옷걸이에 걸어놓고 제각 밥상을 차렸다.

강냉이쌀이 섞인 밥, 나물국, 무우장절임, 김치 한사발...

리종대는 밥상에 마주앉아 국 한순가락을 후후 불며 맛보더니 병싯 웃음을 띄웠다.

《거 나물국에 토장을 넣으니 뜨끈한게 시원하구만. 확실히 이 강냉이쌀밥이 좋구만, 맛도 구수하구.》...

종대는 밥을 푹 떠서 국에 말더니 무우장절임에 받쳐 맛있게 들었다.

고질적인 위병을 오래 앓고있는 그는 위낙 흰쌀밥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형편이였다.

남녀는 식사 하나 변변히 대접하지 못하는 자기의 아픈 심정을 농쳐주느라 자못 원심을 쓰는 그의 마음이 헤아려져 가슴이 알알해났다.

종대는 밥그릇을 채 비우지 못하고 순가락을 놓았다.

남녀는 밥상에서 물러앉은 그에게 물었다.

《어때요? 약을 쓰면 짐승들이 좀 나올가요?》

《글쎄...》

남녀는 눈길을 떨구고 목소리를 낮추어 의논조로 이야기했다.

《저… 제 생각엔 마리수를 좀 줄이면 어쩔가 해서… 정말 이러다간 축산도 가정일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될것 같지 않군요.》

남녀는 요즘 학기말시험공부를 하는 금일기와 금복이의 반찬판에 닭알도 제대로 싸주지 못한다는 말을 끝내 삼켜버리고말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방안에 흘렀다.

《그러니 줄이잔 말이지.》 하고 중얼거리던 리종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한마리, 두마리 없애기 시작하면 어떤 단 말ियो? 6년동안 염소들을 저만큼 자래우느라 속을 얼마나 태웠고 땀인들 얼마나 많이 흘렸소. 당신 생각나지 않소? 소낙비를 맞으면서 새끼염소 열다섯마리를 끌고오던 때를 말ियो? 난 정말 그날을 잊을수가 없구만.》

남녀는 금시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다 자란 어미염소들, 이제는 젖도 내고 새끼도 낳는 끝끝한 염소들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곤 하는,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6년전 그 봄날이었다.

그날 남녀는 가정생활을 하며 조금씩 저축한 자금으로 마련한 새끼염소를 받아오게 되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에 소낙비가 내리겠다고 알려주었다.

남녀는 점심전에 돌아설 생각을 하면서도 후시나하여 비옷과 우산을 가지고 떠났다.

일곱달이 된 금복이를 업고 20리길을 걷게 되었다.

새끼염소들은 떠날 때부터 애를 먹이었다.

주인이 낮설어보여 그러는지 가지 않겠다고 네다리를 딱 뻗었다.

남녀는 염소들의 목사리에 각각 열다섯개의 고삐를 련결한 다음 그끝을 움아맨 매듭을 왼손에 잡고 채찍질을 해가며 가까스로 끌고갔다.

움거리를 벗어나 다리목에 이르렀을 때는 점심시간이 썩 지난 뒤였다.

갑자기 북쪽하늘에서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삼시에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불안한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안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요란한 평음이 터졌다.

미구하여 소낙비가 쏟아져내리었다.

줄대같이 굵은 비가 창살처럼 내리쬐기며 땅을 두들겨댔다. 게다가 바람까지 향방없이 불어치며 남녀와 등에 업힌 애기에게 주먹같은 비방울들을 짜락짜락 휘뿌렸다.

길가던 사람들이 비를 그으려고 다리밑으로 들어가는것을 보면서도 남녀는 새끼염소들때문에 도저히 비를 피할수 없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새끼염소들은 이 무슨 날벼락이냐는듯 두눈에 겁기를 머금고 오돌오돌 떨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순간 남녀의 눈에는 비를 맞는 새끼염소들의

모양이 몹시도 애처롭게 비껴들었다. 그는 황황히 비옷과 우산을 꺼내 염소들에게 씌워주려고 하였다.

이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다리에서 뛰쳐나와 저저마다 새끼염소들을 안아들었다.

《아주머니, 정신있소? 아이보다 염소가 더 중요오? 허참, 어머니라는데…》

다리밑에서 제일먼저 달려나온 중년남자가 혀를 끝끝 차며 핀잔하였다.

비를 맞으며 염소들을 다리밑에 들어놓아준 사람들은 제나름대로 한마디씩 떠들어댔다.

남녀는 뜨거운 눈길로 고마운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비가 멎은 뒤 도로에 나섰을 때 리종대가 차를 몰고 마중나왔다.

운전칸에는 정치지도원이 앉아있었다.

리종대는 비물이 줄줄 떨어지는 남녀의 몸을 와락 부여잡고 《여보!》 하고 격한 부름을 터치고는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렇게 힘들게 한마리한마리 모아키운 염소들이었다. …

이윽고 생각에서 깨어난 남녀는 길게 호— 하고 숨을 내그었다. 그러는 남녀를 바라보던 리종대는 단호한 기색으로 머리를 저었다.

《아니, 난 차마 손이 떨려서 염소들을 없애지 못하겠소. 여보, 우리 더 힘을 내자구. 어떻게 하나 이 고비를 넘겨야 하오.》

남편은 힘들게 말을 맺고는 동통이 오는지 손가락으로 복부를 짚 눌렀다.

《또 아파요?》

남녀의 근심어린 물음에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일없소, 손침을 놓는겨요.》

그는 혼연히 웃어보였다.

아이에게 짜줄 닭알문제는 아예 말도 꺼낼수 없었다.

염소, 돼지, 오리 등 먹이문제, 남편의 위병, 강냉이쌀밥, 닭알반찬… 이 생각, 저 생각이 연줄연줄 꼬리를 물고 떠오르며 서로 무질서하게 부딪치면서 머리속을 헝클어놓아 남녀는 온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리었다.

3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집짐승병과의 긴장한 전투는 계속되었다.

한편으로는 풀이 많은 산판으로 염소들을 끌고다니며 이동방목을 해야 하고 부업밭에서는 풀도 뽑고 가을남새생산을 위해 두엄을 날라다가 영양단지도 짚어야 했다.

그 많은 일감들을 부여안고 분주히 돌아가던 어느날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산에서 방목하던 염소들을 끌고 내려와 우리안에 들여보내면서 살펴보니 《순돌》

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염소가 보이지 않았다.

염소들은 산에 붙어 풀을 뜯어먹다가 배가 부르며 따거운 해벌을 피해 나무그늘이나 큰 바위밑에서 소르르 잠에 들어 자기 무리에서 떨어지는 때가 가끔 있었다.

종자염소 100여마리에 비육염소 90마리가 이쪽저쪽으로 부산스레 움직일 때 일일이 세어보았는데 질수한것 같았다.

남녀는 가슴이 섬찍해났다.

눈에 달이 떠서 급히 산릉선으로 내달았다.

신발앞고승이가 터지고 바지가랭이가 찢어지는것도 모르고 경황없이 온 산판을 뒤지었다.

점심도 건느고 오후내껏 찾아헤맸으나 염소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는 남편과 함께 전지를 켜들고 이산저산 돌아다니었다.

밤 12시가 다되어서야 벼랑밑의 후미진 곳에서 쓰러진 염소를 찾아냈다.

《순돌》이는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할썩할썩하며 괴롭게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순돌〉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남녀는 염소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반가움과 야속함이 한데 어울려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

그러는 안해를 보는 종대의 눈가에도 물기가 핑어리었다.

염소를 안고 일어서던 남녀가 그만 무릎을 꿇으며 풀썩 주저앉았다.

《아!—》하고 비명을 내지르는 남녀의 얼굴에 식은 땀발이 내돌았다.

《여보, 왜 그러오?》

리종대는 놀라며 눈을 멍들하게 뜨고 남녀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아까 벼랑길을 오를 때 발목을 곱질렀어요. 그때 그저 염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혀 아픈줄을 모르고 뛰어다녔는데...》

《긴장이 풀렸으니 아플수밖에.》

종대는 걱정어린 안색을 지으며 남녀의 발목을 두손으로 잡았다.

그리고는 끄— 하고 힘을 주며 잡아당겨 대번에 제자리에 맞추어주었다.

그래도 남녀는 걸을수 없었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이 쏘아나면서 한걸음도 내짚을수 없었다.

《안되겠소. 염소를 먼저 우리에게 날라다놓고 다시 올라오겠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오.》

종대는 서둘러 염소를 안아들더니 총총히 비탈길로 내려갔다.

한시간이 못되어 되돌아온 그는 남녀의 앞에 자기의 잔등을 내밀었다.

《자, 어서 업히오.》

《아이, 망측스럽게.》

신남녀는 종대의 떡판같은 잔등을 주먹으로 가

볍게 두드렸다.

《허허,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망측하긴.》

《싫어요. 절뚝거리면서라도 걸을수 있으니 당신의 팔을 끼고 가자요.》

사실 이 순간 그는 남편의 등에 업히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저 듬직한 잔등에 척 업히면 못 견디게 쏘아대는 아픔도 당장에 가시어질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의 등에 어떻게 업힌단 말인가.

종대는 남녀의 어린 마음을 읽었는지 너부죽한 얼굴에 사뭇 느슨하면서도 능청스러운 미소를 피워올리었다.

《뭐, 팔을 끼고 가? 안돼, 무조건 업혀야 해. 이거 말로 해서는 안되겠구만.》

리종대는 무작정 안해를 들쳐업었다.

《이젠 꼼짝말고있으라구. 우리 귀부인을 무사히 집까지 모셔다드릴테니.》

그는 안해를 추슬러올리고는 씨엥씨엥 숲을 헤쳐나갔다.

그리고는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량반행차의 길잡이군처럼 호기있게 목청을 뿜으며 소리쳤다.

《물러께라, 치어께라.— 리종대의 귀부인님이 나가신다.》

《호호호.》 남녀는 그만 참지 못하고 까르르 웃었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나무들아, 덩굴아, 길을 비켜라— 존귀하신 금봉산의 염소 어머니가 희망의 언덕을 향해 숲의 바다를 헤치노라. 휘방놓는 눈이 있거들랑 엄벌에 처할지어다. 물러께라, 치어께라—아.》

남편의 익살스러운 흉내에 남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명랑하게 웃었다.

그렇게도 괴롭히던 아픔이 가신듯이 사라지는것을 느꼈다.

한동안 그렇게 사기를 둔구며 걸어가던 종대는 다시한번 안해를 추슬러올리면서 잠깐 멈춰섰다.

《어때, 좋지?》

《예. 좋아요.》

《그럼 노래 한곡 불러주오. 이처럼 달빛이 유정한 숲속길을 그냥 맨승맨승 갈 멋이야 없지.》

《노래요?》

《응. 우리가 좋아하는 그 노래 있지 않소.》

남녀는 남편의 목을 꼭 그러안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나직이 노래를 불렀다.

사랑의 이랑에 씨앗뿌리며

서둘러 그 수고 말하지 말자

...

남녀의 은은하고도 서정적인 노래소리는 사랑과 신념으로 달구어낸 강권같은 뜨거움과 무게를 안고 숲속의 어둠을 흔들며 물결쳐갔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것은 새벽 1시가 지나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쯤은 업어가도 모르게 자고
있을줄 알았던 금일이와 금복이가 집뒤의 언덕길에
서 눈이 빠지게 부모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두 아이는 《아버지, 엄마.》 하고 부르며 뽀르르 달려왔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에 업힌 엄마를 놀라움과
희이 가득 실린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이렇게 됐나?》

《오늘 엄마가 영웅적으로 싸워 장렬하게 업소
를 구원했다.》

아버지의 익살기어린 톤말을 진짜로 여겨들었는
지 금일이의 눈이 울롱해졌다.

《메돼지가 또 습격했나요?》

《아니!》

《그럼 승냥이?》

《아니, 호랑이와 싸웠단다.》

《호랑이요?!》

두 아이는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소리쳤다.

《하하하, 어서 들어가자.》

리종대는 아이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오빠가 밥을 해냈어요. 두릅나뭇지개
두...》

《그래? 용쿠나.》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자니까 오빠가 아버지,
엄마 온 다음에 먹자면서 참으라나요.》

《우리 금일이, 금복이가 정말 기특하구나. 과시
리종대, 신남녀의 자식들답다.》

종대는 두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었다.

금복이의 말을 듣는 남녀는 코마루가 찌르르해
왔다.

잠시후 네식구는 밥상에 둘러앉았다.

강냉이쌀밥은 설익어서 생쌀을 씹는것만 같았다.
그것을 푹 떠서 우물우물 씹어삼키던 남편은 사
뭇 즐거운듯 얼굴에 웃음을 지어보였다.

《우리 금일이가 지은 밥이 괜찮아. 아주 맛있거
던. 차분차분하고 뜯뜯뜯득한게... 허허.》

금일이는 매우 즐거워하는듯 한 아버지의 얼굴을
기쁨의 빛이 잔글거리는 눈길로 바라보더니 손가락
을 놓고 별뿔 일어났다.

《아버지, 엄마! 나 노래 하나 부르랴요?》

《노래를? 좋지. 오래간만에 금일이 노래를 들
어보자꾸나.》

《그래, 어서 부르렴.》

남녀도 무뎡 반가움이 앞서 호응하였다.

금일이는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솟구더니 달당
져보이는 몸집을 좌우로 흔들며 목청을 뽑았다.

매매염소가 즐지어가요

맛있는 풀판을 찾아가지요

...

금복이까지 오빠의 옆에 착 붙어서서 목소리를

합치였다.

호호하하 우스워 애기염소가

하얀 수염 흔들며 앞장서가요

반장같아요

두 아이는 저마끔 두손을 옆구리에 올려붙이고
배를 볼록 내밀고 하하호호 웃는 흉내를 내는가 하
면 두손을 앞으로 툭툭 내뻗치며 새끼염소가 깜찍
스럽게 걸어가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웃는 모양이 재미났
는지 더욱더 성수가 나서 그냥 우습강스러운 동작
을 해가며 노래의 2절까지 냅다 불러냈다.

리종대도 웃었고 신남녀도 웃었다.

아이들의 그 가특한 마음이 헤아려져 남녀는 즐
거운 마음에도 눈가에 땀돌아오르는 옅은 물기를
제껴 손등으로 훔쳐냈다.

4

생활은 자기의 법칙을 가지고 흘러가고있었다.
그 생활은 신남녀의 의지를 검열하는 엄격한 시험
판이기도 했다.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다정다감하면서도 강의
한 남녀였지만 가슴속에는 항상 녀성으로서, 어머
니로서 남편과 자식들을 남들처럼 잘 먹이고 잘해
입히고 내세워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덩이처럼 매
달리며 마음을 무겁게 하는것이였다.

아이들한테서는 마음의 금선을 흔들어놓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하였다.

그날도 밤늦도록 방목지에서 일하다가 늦게야 들
어온 신남녀는 책가방도 없이 맨손에 책을 안고 들
어서는 아들애를 보게 되였다.

《너 이게 웬일이냐? 가방은 어떻게 하고 빈몸으
로 덜렁덜렁 왔니?》

《켓, 그까짓 가방. 학철이한테 돌려주고말았지
뭘. 까불쟁이같은거!》

툭툭거리는 금일이의 두볼은 왕밤알이라도 문듯
불거져나왔다.

《돌려주다니? 어서 자세히 말해봐, 어서.》

《수학시험을 치는데 옆에 앉은 학철이가 자꾸
대달라고 조르지 않겠어요. 제힘으로 풀라니까 두
덜두덜거리더니 끝내 틀리게 풀어서 3점을 맞았지
요 뭘. 그런데 학철인 나때문에 3점 맞았다면서
〈각쟁이, 각쟁이.〉 하고 놀려주지 않겠어요. 그러
면서 가방까지 주었는데 안 대줬다구 시뻘해하길래
아예 가방을 돌려주고말았어요.》

한동안 남녀는 얼어붙은듯 못박혀 서있었다.

어제는 닭알, 오늘은 가방... 남녀의 가슴속에서
는 자신에 대한 알지 못할 민망스러움이 부끄그 끓
어올랐다.

금일이가 가지고다니던 가방은 부종대장이 마련
해준것이였다.

어느날 부종대장의 안해가 새 가방을 가지고 찾아왔다.

《우리 학철이 아버지가 출장갔다가 아이들의 가방이 해졌다면서 새 가방을 사왔더군요.》

금일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이 생산한 그 많은 고기와 알, 염소젖을 군인들에게 보내주는데 금일이에게 가방 하나 못 사주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아이, 정말 고마워요.》

이런 사연이 있는 가방이었는데 오늘에 와서 일은 별나게 되어버리었다.

남녀는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오는것을 느끼었다.

《그렇다구 가방을 주면 어떻게 하니? 학철이를 잘 타일러야지. 학철이부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니?》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남녀는 자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것을 느꼈다.

생활은 이처럼 자주 남녀의 의지를 알곳게 희롱하였다.

그날 리종대는 밤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다.

밥도 몇술 뜨지 못하는, 너무도 심한 피로가 몰린 그의 얼굴을 보니 남녀는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다음날 점심무렵 방목지에서 끌고온 염소들을 우리에 들여놓고나오던 신남녀는 시내가에 남편이 앉아있는것을 띄어보았다.

염소우리에서 두엄을 저내다가 땀을 들이는 모양이었다.

남녀는 조용히 다가가 평퍼짐한 너럭바위우에 앉아있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좀 쉬엄쉬엄 하세요》

《아, 당신이요? 여기 앉소.》 하고 종대는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다.

남녀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았다.

한동안 말없이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중턱에 우중충 솟아오른 커다란 2층짜리 염소우리, 그아래 비탈면을 깎아내고 아담하게 들어앉은 침실이며 먹이진조장…

여기저기 널려있는 부엌밭들에서는 팔뚝같은 이삭을 빼문 굵은 강병이대들이 소솔바람에 개피리틀 흔들거리며 노란 꽃가루를 날리고있었고 시퍼렇게 독을 쓰며 자라오른 콩대들에는 통통 살이 오른 콩이삭들이 다달라람 매달려있었다.

우리앞에 주련이 놓인 소금그릇들에 달라붙어 소금을 먹으며 새김질하는 염소들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는 종대의 얼굴에는 그지없이 살뜰하고 애뜻한 정희가 어리었다.

《저… 여보!》하고 신남녀는 남편의 팔을 다정히 잡았다.

종대의 얼굴에 금시 의아한 기색이 실려였다.

《왜? 무슨 일이 있었소?》

남녀는 금일이의 닭알반찬으로부터 가방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아이들에게서 제기된 문제들을

차초지종 털어놓았다.

종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잠시 아무 말도 없던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오리를 한 서너마리 없애자요.》

《그 오리들이야 이번 명절날에 군인들에게 먹이기로 되어있지 않소. 봄내, 여름내 길렀다는게 100마리도 못되는데 거기에서 몇마리 털어내면 군인들의 똥이 줄어들텐데…》

《그럼 통오리를 쓰지 말고 몽땅 삶아서 고기를 발가낸 다음 골고루 그릇에 담아주면 어떨가요?》

《뭘요? 당신 그제 진심이요?》 종대는 버럭 어성을 높이며 수북한 장미를 치켜떴다.

《언제부터 당신이 그런 형식주의자가 됐소? 우리 진심이 깃들지 않은 그런 걸치레가 무슨 필요가 있소? 해마다 가을철에 군인들에게 통오리를 먹이는것은 우리가 그들과 지켜오는 약속인데 그걸 흥정하다니! 섭섭하구만.》

신남녀는 종대의 말에 가슴이 찢리는듯 한 예리한 아픔을 느끼었다.

《형식주의자라구요? 걸치레라구요? 어쩌면 당신이 그런 말을…》

남녀는 설음이 복받쳐 얼굴을 싸쥐었다.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종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채 안해를 바라보다가 미안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여보, 그만하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구.》

《나야 그 애들의 어머니가 아니냐요, 한가정의 주부고…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뭐 편한 줄 알아요?》

《알지, 알아. 내 다 안다니까? 격한김에 한 말이니 노여움을 풀라구.》

종대는 손수건을 꺼내 남녀의 볼에 이랑저흐르는 눈물을 살뜰히 닦아주었다.

남녀가 좀 진정되는것을 종대는 다심하고 사려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참고 헤쳐나가자구. 그만한 난관에 주저앉아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 때가 끼면 어떻게 해. 한점의 티도 없는 순결한 마음을 지닐 때에만 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끝까지 할수 있는 거요.》

남녀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눈을 들어 열정에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우린 애당초 이 일을 시작도 못했을거요. 정말 험치 않은 길이었지.》

종대의 얼굴에는 진중하면서도 회억깊은 빛이 어리었다.

《참, 세월이 많이도 흘렀구만. 저 염소우리를 새로 지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세월이 흘렀소. 그동안 일도 많이 했지. 많은 염소고기와 젖을 냈으니… 어디 그뿐이요.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느낄수 없는 그런 보람과 긍지가 있소. 풍성한 식탁을 마

주한 군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종대는 걱정이 치미는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소금을 먹는 염소들을 환희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금일이 아버지.》

남녀는 정이 함뿍 어린 눈길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바로 이렇게 사는 멋이고 누리는 락이 아닐가.》

남녀의 손을 정답게 잡고 다정히 어루쓸던 종대의 얼굴에는 다감하고 부드러운 빛이 물결쳐갔다.

《당신 손이 이렇게 험해졌구만. 그 굵던 얼굴도 해벌에 타구...》

남녀는 자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얼기설기 터갈라지고 장알이 박힌 손, 나무뿌리처럼 거치르고 째깍한 손...

《여보, 힘들지?》

《...》

《수백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기르면서 아이들도 돌볼래, 가정살림도 꾸릴래... 정말 당신의 수고가 커. 당신의 뒤받침이 없었다면 오늘같이 이런 보람은 느껴보지 못했을거요.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군인가족들을 그리도 높이 내세워주신거지. 별로 한일이 없는 나도 얼마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소.》

리종대는 진지하고 절절하게 열기편 음성으로 뒤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나게 잘나기라도 했소, 특별히 영웅적위훈이라도 세운게 있소? 그저 군사복무를 하면서 염소를 말아 기른것밖에 없는데 당에서는 나를 큰 대회에도 불러주었소. 글썄 내가 무슨 장한 일을 했다구... 난 지금도 촬영장에 나오셨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을수가 없구만. 눈에 흠이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거요. 글썄 장군님께서 입고계신 야전복 소매가 닳아져있지 않겠소. 우린 모두 울었소.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뵈오며 가슴을 치는 자책감에 울고... 모두들 뜨거운 눈물을 찰찰 흘리며 목놓아 울었소.》

종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고 목소리는 폭젓어있었다.

남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리었다.

《그때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절감했소. 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끝까지 해서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소.》

그는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름할수없이 뜨겁고도 강렬한 빛이 비껴흐르고있었다.

뜨거운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안해의 어깨에 그는 손을 올려놓았다.

《죽어도 살아도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을 위하여! 여보, 우리 이 신념을 안고 변함없이 끝까지

이 길을 감시다. 지금껏 해온 일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수 있소. 우리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일을 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종대에 모실 그날을 꼭 앞당겨옵시다.》

신남녀는 남편의 어깨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물결치듯 오르내리는 안해의 어깨를 종대는 다정히 다독여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날 저녁 학철이 어머니가 학철이를 끌고 남녀의 집에 찾아왔다.

학철이의 손에는 금일이의 가방이 들려있었다.

5

무더운 여름철이 느리게 지나가자 푸르른 산밭은 갈색빛으로 물들여졌다.

청명한 가을, 수확의 계절이 오고있었다.

붉은 양지바른 산등성이나 버들개지 움트는 산촌의 시내가에 먼저 찾아오지만 가을은 나무잎새들에 먼저 찾아들었다.

밭고무레하게 물든 단풍나무며 개암나무의 잎새들이 선들선들 불어오는 소슬바람에도 와스스 떨어져내렸다.

신남녀의 가정에서는 이 가을이 남편의 병증세가 악화되는것으로 시작되었다.

강냉이, 콩을 비롯한 낱알도 견어들여야 하고 강냉이짚, 콩짚을 비롯한 집짐승먹이도 장만하고 무우시래기, 배추시래기도 타래엮어 말려야 하는 드바쁘기 그지없는 계절에 남편의 병이 급격히 심해져 남녀는 애간장이 빠질빠질 타드는듯싶었다.

원래 리종대는 위병때문에 식사도 조금밖에 못하였고 그마저도 잘 소화되지 않아 항상 주머니에 상비약을 넣고다니며 때없이 먹곤 하였다.

그러다가도 선선한 가을이 오면 식사를 좀 하곤 하였는데 이해 가을에는 이상하게도 거의나 식욕을 잃어버리다싶이 하였다.

허약한 몸으로 완강하게 일해나가는 종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입술은 초들초들 말라 덕지가 두텁게 앉았으며 눈에는 시뻘건 피발이 서있었다.

종대는 오늘 아침에도 안해의 정성이 깃든 잣죽을 겨우 반공기쯤 비우고는 속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밥상에서 물러나앉는것이였다.

그래서 찹쌀미음을 한공기 권했더니 그것도 다 마시지 못하고 내려놓았다.

신남녀는 불안한 생각이 흐린 날의 연기처럼 서려도는것을 느꼈다.

(저이가 혹시 중병이 든게 아닐가. 미음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것은 병이 극한점에 이르렀다는게 아닐가, 극한점이!)

그는 한순간 고압전류와도 같은 짜릿한 전율이 피줄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흠칫 몸을 떨었다.

《여보, 어찌된 일이에요, 미음도 다 마시지 못

하니?)

《이러다가 좀 낫겠지. 내 병이야 원래부터 이런걸.》

종대는 안해의 얼굴에 드리운 불안의 그림자를 털어버리려는데 혼연히 웃어보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 남편의 눈은 속일수 없었다.

《아니, 내 보기엔 심상치 않아요. 이러다가 큰 일나겠어요. 여보, 얼마전에 병원에 갔을 때 무슨 진단을 받았어요? 병명이 뭔가 말이에요, 예?》

신남녀는 남편의 두어깨를 부여잡고 다우쳐물었다.

《내 그때 말하지 않았소, 위궤양이라구.》

《정말 위궤양이라구 했어요?》

《아무렴 내가 거짓말을 하겠소?》

《정말이에요?》

신남녀는 종대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그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허허 참, 정말이요. 진짜라니까!》

종대는 요지부동이였다.

아무리 따지고 캐묻고 해야 그 이상의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을 느낀 남편은 놀라움과 의혹이 엮어진 눈을 살퐁이 감아버리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도병원에 나가서 알아봐야겠어. 오늘중으로 당장!)

그는 지그시 입술을 옥물었다.

그런데 종대는 느닷없이 왕창같은 말을 꺼냈다.

《참 여보, 내 오늘 벽성에 좀 갔다와야겠소. 당산 언니가 있는 그곳 농장에 큰 소여물가마가 있는데 관리위원장이 주겠다고구만. 큰 가마가 없어서 얼마나 애를 먹었소. 당장 실어와야겠소.》

남녀는 너무도 억이 막혀 두눈을 흘뜨며 소리쳤다.

《그 몸으로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했는데...》

종대는 안해의 손등을 오른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현현한 어조로 말했다.

《내 몸이야 내가 잘 알지. 너무 걱정마오. 물이 열바게뜨나 들어가는 가마라니 얼마나 좋소.》

그의 얼굴에는 그지없이 흡족한 미소가 활짝 피어올랐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에는 염소들을 산판으로 끌고다니며 이동방목을 하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다섯달동안은 염소들에게 마른풀을 먹이는 동시에 낱알가루를 둔 여물을 끓여먹이였다.

그런데 100여마리나 되는 어미염소들에게 한꺼번에 끓여먹이자면 작은 가마로는 여러번은 끓여내야 했다.

그런것을 열바게뜨들이 가마로 두번만 끓이면 되니 그들에게는 사실 이만저만 반가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그것이 조금도 반가운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남편의 병밖에 없었다.

그토록 애타게 만류하며 길을 막아나서는 안해에게 밝은 웃음을 지어보인 종대는 끝내 집을 나섰다.

(아! 불같은 사람.)

동통이 오는 배를 두손으로 누르며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떠나는 종대를 바라주는 신남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함초롬히 고여 쇠물처럼 자글 자글 끓었다.

남녀는 그길로 버스를 타고 도인민병원을 찾아갔다.

과장은 나이지숙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찾아온 사연을 듣더니 필쩍 뛰었다.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녀달동안이나 부대에도 안해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약도 쓰지 않은채 그냥 일만 해대는 사람이 어데 있는가고 하면서 야단을 했다.

《예? 불치의 병이라구요?...》 남녀는 눈앞이 아찔해왔다.

자기가 어떻게 의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문을 나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믿을수 없었다. 그렇게도 정에 웃고 정에 울며 생의 의욕에 차넘치던 강철같은 사나이, 불같은 인간이 쓰러지다니!... 절대로 그럴수 없어!

남녀는 세차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리종대는 다음날 오후에 뜻밖에도 남편의 언니한테 부축을 받으며 집에 들어섰다.

《금일이 아버지!》

남녀는 왈칫 쏟아지는 눈물을 속으로 씹어삼키며 그의 두팔을 짊 부여잡았다.

《여물가마를 신고왔소. 래일부터 우리 염소들에게 여물을 배부르게 푹푹 떠먹입니다. 염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소.》

리종대는 짐짓 껄껄 웃었다.

꺼칠해지고 피기없이 해쓱해진 얼굴, 더갈라진 입술... 그러나 눈만은 어느때보다 더 황황 불을 뿜는듯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지없이 행복한, 자기만이 이 세상의 행복을 다 누리는데는 기쁨의 미소가 흘러넘치고있었다.

한동안 녀없이 종대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샘처럼 철철 흘러나왔다.

언니가 그의 옆에 다가오더니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웅얼웅얼 이야기했다.

《글쎄 것처럼 아픈 몸인데도 여물가마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느니... 막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구나.》

사실 리종대는 적재함에 실은 여물가마가 험한 산길에 들추면서 깨어질가봐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건드듯 조심조심 차를 몰아왔다.

한 5리쯤 와서 차를 세운 그는 적재함에 올라서서 가마를 살펴보고 내려왔다.

언니는 무거운 몸으로 움직이는 그에게 말했다.

《됐어요. 쇠가마여서 깨여지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이게 얼마나 귀한건지 압니까? 이것만 있으면 금일이 엄마가 고생도 덜고 우리 염소들도 배불리 먹을수 있지요.》

그는 흐뭇한 미소를 피워올렸다.

그는 5리를 와서 또 차를 세우고 적재함에 올라갔다.

그렇게 수백리길에 수십번이나 차를 세우고는 적재함에 오르고내리었다.

《어찌나 가마에 신경을 썼는지 금일이 아버지의 잔등이 땀에 폭 젖었더구나. 얼굴에서는 땀줄기가 줄줄 흘러내리구…》

남녀는 언니의 말을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온몸으로 들은듯싶었다.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땀 한방울까지도 깡그리 짜내어 군인들을 위해 바치는 헌신의 세계! 아, 어찌 그 땀을 물이라고 하랴!

그것은 그야말로 금일이 아버지의 후더운 심장에서 뿜어내는 사랑이고 정이고 열이 아닌가! 그 뜨거운 심장이 내뿜는 피방울 한방울한방울을 불길로 태워 쏟아내는 진하다진한 녀의 응결체가 아닌가!…

그는 종대의 가슴에 와락 안기었다.

한동안 오열을 터치고난 남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물을 흘리었다.

《금일이 아버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병치료를 하자요. 영양보충도 하고… 늦지 않았어요.》

《영양보충이라니?! 일없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오.》

그는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여보, 난 어제 도병원에 갔됐어요. 다… 다 알고왔으니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하자요, 예?》

《음-》

남편의 충혈진 두눈이 금시 놀라움에 굳어지더니 인차 불꺼진 숯덩이처럼 빛을 잃었다.

《당신이 그런 진단을 받고서도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영양보충도 별로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몸을 추세워야겠어요. 그렇게 하자요, 예?》

그는 남편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약도 영양음식도 남편과 토론없이 혼자결심으로 마련할수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구해온 것을 알면 그 울퉁고도 불같은 성미에 하나도 들지 않을것이라고 여겨져 이렇게 눈물어린 간청을 하는것이였다.

《여보, 난 이제 얼마… 살지 못하오. 약을 쓰고 영양이나 보충한다고 털어버릴 병이 아니요. 다 알면서도 뭘 그러오. 그러니 절대로 그 무엇을 구해온다고 뛰어다니지 마오, 응? 그렇게 하지?》

《안돼요. 안돼요.》

남녀는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다.

종대는 세차게 떠는 안해의 어깨를 꼭 그러안았다.

《여보, 진정하오. 난 한이 없구만. 다만 우리 군인들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가는것이

아쉬울뿐이지. 난 당신이 있기에 마음이 놓이요.》

종대는 안해의 눈물로 얼룩진 두볼을 정겹게 쓸어주었다.

남녀는 더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는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이었다.

리종대는 이렇게 남녀의 마지막성의마저 간절히 만류하였다.

그의 두눈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빛이 진하게 실려있었고 길쭉한 얼굴에는 생의 마무리를 떳떳이 한다는 긍지가 고즈녁이 어려있었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길지 않은 한생을 별처럼 빛나게 살다가 방목지에서 순직한 리종대를 애국렬사로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그때로부터 한해후인 주체103(2014)년 12월의 어느 날 신남녀는 뺨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남편의 땀방울을 거울로 삼고 구슬같은 땀을 흘리고흘려 남편이 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집집승들을 길러 올해도 염소고기, 돼지고기, 염소젖을 비롯하여 수많은 오리고기, 닭고기와 닭알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준 신남녀였다.

경쾌하게 달리는 뺨스의 차창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는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있는 남편과 뜨거운 마음속 대화를 나누고있다.

《금일이 아버지, 기뻐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집에 당신이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함께 정히 모시게 되었어요. 영원한 가보로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가정처럼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또 어데 있겠어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렇듯 강의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더운 저 동지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안해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건말건 말없이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동지들이 흘리고있는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들은 혁명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며 더 윤력한 앞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게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어요.》

난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안고 앞으로도 당신처럼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겠어요.

이건 당신의 부탁이었지요. 절 믿어주세요.》

신남녀의 마음은 정든 집과도 같은 방목지에도 내려라도 돌친듯 훨훨 날아가고있었다.